

시의 방언

유종호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광복 이후 학교에서 표준말을 배우고 억힘에 따라 쓰지 않게 되어 지금은 거의 잊어버리다시피 한 방언들이 더러 있다. 충북이 고향인 필자의 경우 그 수효가 많지는 않고 또 크게 별나지도 않다. 표준말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몇 가지 보기를 들면 ‘나마리(잠자리)’, ‘정구지(부추)’, ‘무수(무)’, ‘가새(가위)’, ‘배차(배추)’ 등이 있다. 아이들이 모여 놀 때 짐짓 모르는 척 배추를 가리키며 “저게 뭐지?” 하면 누군가가 “배차!”라고 하게 마련이다. 그러면 달려들어 배를 차려한다. 항변하는 아이에게 “네가 배차라 하지 않았느냐”고 우긴다. 그런 놀이가 지금은 표준말 보급 덕택으로 없어졌을 것이다.

우리 쪽에서는 또 거울이라 하지 않고 ‘색경’이라 했는데 그것은 ‘석경(石鏡)’이 변한 말이었다. 김소월의 유명한 시 “진달래꽃”은 초등학교 때 접했지만 그 꽃이 어떤 꽃인지 알지 못했다. 한참 뒤에야 그것이 ‘참꽃’임을 알고 맥이 풀렸던 기억이 있다. 독이 있어 먹으면 안된다는 ‘칠썩꽃’과 먹어도 좋은 ‘참꽃’을 구별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집안에서 배운 최초의 생물 교육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참꽃’을 진달래의 방언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진달래란 말을 우리 고향 쪽에서 쓰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나중에 학교에서 진달래를 배우고 익혔을 뿐이다.

취학 전에 배운 입말들은 독특한 울림과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신비감을 가지고 있던 어릴 적의 경험이 배어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어(詩語)로서 각별히 기능적이다. 시인들이 즐겨 방언을 사용하는 것도 그것이 심금을 울리는 정감의 말이기 때문일 것이다. 시속에 나오는 방언 혹은 별칭의 이것저것을 살펴보기로 한다.

얹은뱅이꽃

홍난파 작곡 “고향의 봄”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그 동요의 작사자인 이원수가 광복 직후에 상재(上梓)한 동요집에 “종달새”라는 것이 있다. 알팍하고 빈약한 책이지만 한글을 깨치고 나서 얼마 안되어 접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껏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때 읽은 동요 가운데 제목마저 잊어버렸지만 묘하게 머리 속에 남아 있는 대목이 있다.

봄이 오면 간다는 내 동무 순이
얹은뱅이꽃을 따며 몰래 읊는다.

이원수는 1979년에 “너를 부른다”는 자선 동요시집을 냈는데 거기에 이 대목이 들어 있으나 작품은 보이지 않는다. 감상적인 구석이 마땅치 않게 생각되어 그런지 선집에선 빼버린 것이다. 이때부터 ‘얹은뱅이꽃’이 제비꽃의 방언이라고 이해해 왔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얼마 전 어느 자리에서 ‘얹은뱅이꽃’ 얘기가 나왔는데 동석했던 작가 박완서 여사가 자기 고향 쪽에선 민들레를 얹은뱅이꽃이라고 한다 해서 잘못 알고 있었나 하고 사전을 찾아 보았다. 그랬더니 얹은뱅이꽃은 지방에 따라서 제비꽃, 민들레, 채송화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 세 가지 꽃은 모두 다 조그만 양생화거나 재배 화여서 공통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가운데서도 제비꽃은 ‘얹은뱅이꽃’ 말고도 ‘오랑캐꽃’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다. 시인 이용악의 절창인 “오랑캐꽃”에는 꽃 이름에 관한 민간어원론(folk etymology)이 소개되어 있다. “긴 세월을 오랑캐와 싸우며 살았다는 우리 머 언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 테를 두른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비슷해 보이는 까닭이라 전한다.” 여기서의 오랑캐는 여진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인의 고향이 함경북도인 만큼 그쪽의 민간어원론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광복 직후엔 ‘제비꽃’보다 ‘오랑캐꽃’이 표준말 구실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전남 영광 출신의 시조 시인 조운에게도 “오랑캐꽃”이란 시조 시편이 있다.

년지시 알은 체 하는
한 작은 꽃이 있다.

길가 돌담불에
외로이 핀 오랑캐꽃

너 또한 나를 보기를
나
너 보듯 했더니

‘제비꽃’에는 그밖에도 지방에 따라 ‘병아리꽃’, ‘씨름꽃’, ‘봉기풀’, ‘장수꽃’이란 별칭이 있다. 그리스의 나라꽃인 이 꽃은 전 세계적으로 천여 종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 쪽 별칭도 아주 많은 셈이다. 기표(記表)와 기의(記意)의 관계가 필연적인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의적(恣意的)이라는 것은 소쉬르 언어학의 중요 공리이지만 그러한 사정을 꽃 이름에 의탁해서 적은 것이 “제비꽃”이란 표제의 어느 무명인의 작품이다.

얇은벙이 마대서
제비꽃인가

오랑캐가 싫어서
제비꽃인가

제비철에 핀대서
아무려면 어때서
제비꽃인가

‘얹은뱅이꽃’ 이름을 피해서 ‘제비꽃’이라 이름한 것인가. ‘오랑캐꽃’이란 이름을 피해서 ‘제비꽃’이라 한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제비가 돌아오는 봄철에 핀대서 ‘제비꽃’인가. 그 또한 아니라면 이름이란 아무래도 좋은 것이어서 ‘제비꽃’이라 한 것인가. 이러한 뜻을 지닌 소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기표와 기의 관계의 자의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썼다는 뜻이 아니다. 작자의 뜻이나 의도야 어쨌건 이 작품에는 그 자의성이 재미있게 드러나 있다는 뜻이다. 제비꽃의 방언과 별칭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작품이 결과적으로 소쉬르 언어학의 공리를 실감나게 밝혀 주고 있는 소품이다.

바구지꽃

“나의 정다운 것들 가지, 명태, 노루, 뽕추리, 질동이, 노랑나비, 바구지꽃, 메밀국수, 납치마, 자개, 짚세기, 그리고 천희(千姬)라는 이름이 한없이 그리워지는 밤이로구나.”

백석 시인의 “야우소회(夜雨小懷)”란 시편의 끝자락이다. 여기서 시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사물을 열거하고 있는데 모두 소박하고 비근하고 토속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그의 취향과 함께 그의 시 세계를 암시해주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바구지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박꽃’을 가리킨다. 시골집 지붕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박꽃’은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흔하디 흔한 농촌

풍경의 하나였다. 저녁에 피기 시작하여 아침 햇살에 시드는 것이 특색이다. 그래서 시인 박목월은 “청록집”에 실린 시편 “박꽃”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흰 옷자락 아슴아슴
 사라지는 저녁답
 썩은 초가지붕에
 하얗게 일어서
 가난한 살림살이
 자근자근 속삭이며
 박꽃 아가씨야
 박꽃 아가씨야
 짧은 저녁답을
 말 없이 울자

그런데 백석은 굳이 ‘바구지꽃’이란 방언을 써서 바가지를 열리게 하는 꽃을 한결 구체적인 이미지로 만들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결 질박(質朴)하고 소박한 맛을 더해 주고 있다. 그것은 백석의 절창인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스의 잼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위의 대목에서 ‘바구지꽃’을 ‘박꽃’이란 표준말로 대체한다면 그 시행의 정감이 반은 줄어들고 말 것이다. 시는 여기에서 보듯이 ‘기의’보다 ‘기표’에 무겁게 의존하는 언표 형식이다. 사소한 차이가 막중한 차이를 빚어낸다. 그 미묘하면서도 막강한 차이를 인지하는 것이 시의 이해에서는 아주 중요한데 우리 시 교육의 현장에서는 대체로 등한시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개똥벌레

육이오 전만 하더라도 ‘개똥벌레’는 시골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여름밤의 떠돌이였다. 그것이 최근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형설지공(螢雪之功)이란 성구를 아는 사람도 드물지만 형광등의 형광이 개똥벌레에서 나온 것이란 것을 아는 사람은 더욱 많지 않을 것이다. 개똥벌레는 예로부터 많은 시편 속에 등장한다. 20세기 우리 시에도 시인 성찬경의 “개똥벌레의 노래”란 작품이 있다.

바람이 분다. 크라이스트가
영원히 방황한다.
괴테의 책 모양 둥근
태양이 뜬다.
무지개가 선다.
발레리의 계산기다.
개울이여.
동방의 성현(聖賢)들이 흐르누나.
밤이 되면 나도 희미한 빛을
그 변두리에 뿌린다.
하지만 눈부신 저 별들, 스피노자는
참으로 많은 눈알을
갈아냈구나.

그러나 ‘개똥벌레’란 이름이 걸맞지 않게 천격이라 생각하여 ‘반디’, ‘반딧불이’란 별칭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아래 보이는 산문은 김동리의 초기 단편인 ‘바위’의 도입부를 옮긴 것이요, 동요는 1930년대에 나온 동요집에 보이는 장효섭이란 이의 ‘반딧불’이란 작품을 옮긴 것이다.

“북쪽 하늘에서 기러기가 울고 온다. 가을이 온다. 밤이 되어도 반딧불이 날지 않고 은하수가 점점 하늘 한복판으로 흘러내린다. 아무 데서나 쓰러지는 대로 하룻밤을 새울 수 있던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러기 소리가 반갑지 않다.”

반딧불이 반짝반짝 등불을 잡고
밤새도록 무엇 그리 찾고 있는가

나는 엄마가신 나라 찾아가는 몸
길 못찾아 여기서 울고 섰는 몸

반딧불아 네일 그리 급하잖거든
내 갈길 조금만 밝혀 주려마

사선다지형의 시험 문제에 익숙한 젊은이들은 여러 별칭이 있을 때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가령 ‘개똥벌레’가 표준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딧불이’를 방언이라고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얇은벵이꽃’, ‘바구지꽃’, ‘반딧불이’ 등은 모두 버려서는 안 될 우리의 정답고 소중한 낱말들이기 때문이다.